

#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허정행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4-112 |
|----------|--------|

발의년월일 : 2014. 11. 18.

발의자 : 허정행·강희향·김영미  
김윤정·김효식·문정애  
백남환·서종수·송병길  
신종갑·유호렬·이동주  
이봉수·이필레·이학래  
전승학·차재홍·한일용

## 1. 주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는 안전도 D등급을 받은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신설 고가도로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고가도로 위에 보행 전용의 공원을 조성하기로 함

나. 그러나, 하루 5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고가도로를 대체 도로 건설 없이 공원화 할 경우, 고가도로 폐쇄에 따른 교통단절 등으로 고가도로를 이용하여 물건을 납품하는 공덕동·아현동·신공덕동 등에 소재한 가내수공업 공장의 도산이 우려되며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임.

다. 따라서, 마포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공원화 사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대체 도로 건설 등 고가도로 폐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3. 이송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구의회

#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 1975년 건설된 서울역 고가도로는 서울 도심을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의 축으로 청계천 및 퇴계로의 교통량을 소화하며 40여 년간 중구, 용산구, 마포구와 남대문시장, 명동 등의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하루 5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중요한 도로이다.

서울특별시는 안전도 D등급을 받은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4차선 신설 고가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계 용역까지 완료하였으나, 최근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뉴욕의 하이라인파크처럼 보행자 전용 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도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고가도로를 대체 도로 없이 공원화한다면 도로 폐쇄에 따른 교통단절 등으로 남대문 시장과 인근 점포의 상권이 침체되고 가내수공업 공장과 소상공인은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특히, 공덕동, 아현동, 신공덕동 등에서 서울역 고가도로를 통해 시간을 다투며 물건을 납품하는 소규모 봉제공장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상당수가 봉제업에 종사하는 이 지역들은 서울역 고가도로가 공원화될 경우 생업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봉제 업체들의 타 지역 이탈로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상인들은 많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역 고가도로를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를 넘는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면 도심 속 쉼터로 자리 잡아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인근 4만여 명의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마포구 주민의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서울 특별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대체 도로 건설 등 대안을 마련한 후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서울특별시는 대체 도로 건설 없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1. 서울특별시는 기존의 서울역 고가도로를 대체할 신설 4차선 고가도로를 계획대로 건설하여 2개 차로는 차도로, 2개 차로는 공원 및 보행도로로 조성하라
1. 서울특별시는 중구, 용산구, 마포구 주민과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라

2014. 1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